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분석*

-어문·풍습 정책을 중심으로-

전 인 영

본 연구는 1949년 이후 중국이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민족건설(Nation Building)의 일환으로 전개해 온 소수민족정책 중 언어 및 문자,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정책을 살펴 보고, 특히 중앙 정부가 소수민족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지원정책을 수립 전개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민족정책의 기본내용은 민족학적인 이론을 기초로 하여 볼 때 크게 6개 방면으로 귀납하여 볼 수 있다. 즉 ①민족평등의 견지 및 민족단결의 강화 ②민족구역자치의 실현 ③소수민족 간부의 양성 ④소수민족 경제발전과 문화건설에 대한 지원 ⑤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 사용을 중시 ⑥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존중 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민족정책의 6개 방면 가운데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 사용의 중시”와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존중”에 관한 현상과 그 정책의 기본성격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중국의 사회안정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언어 및 문자의 표현과 풍속 및 관습의 보존에 대한 문제는 민족정책 중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소수민족 어문정책의 수립은 그 전체가 첫째, 민족언어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민족평등의 권리 를 보장하고 민족간의 단결을 강화시킨다는 것과, 둘째, 민족의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민족지구의 발전과 현대화가 순조롭게 촉진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전체를 바탕으로 중국이 계속 추진하여 온 민족어문정책은 첫째, 각 소수민족 언어문자의 사용과 개혁의 계속된 추진으로 민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게 되었고, 둘째,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여러 사업발전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단결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작용도 하였다. 세째, 민족언어의 상호학습 권장으로 소수민족의 정치·경제·문화상의 낙후성을 해소할 수 있고, 소수민족지구의 四化(革命化, 年輕化, 知識化, 專門化)건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민족어문정책의 추진은 실제로 민족문제의 건전한 해결을 위한 선행 조건이 되고, 실질적인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선진 문화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정책은 국가가 절대로 등한히 할 수 없는 민족지구사회의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는 중요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정책도 언어 및 문자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기본 원칙은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에 두며, 정책의 대전제가 되는 것은 각 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존중」이다.

특히 풍속 및 관습은 각각 민족의 역사전통, 경제생활, 문화예술, 심리와 감정 그리고 종교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 민족문제의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게 요청되는 민족과 타민족을 구분하는 상징

* 이 논문은 1993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적 지표 중의 하나이다. 또한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정책내용은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존중에 관한 것과 아울러 풍속 및 관습의 유지와 개혁에 대한 기준 설정에 관한 것이다. 즉 우수한 전통을 갖고 있는 풍속 및 관습은 이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것과 나후되고 민족단결과 생산의 발전, 민족번영과 심신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풍속 및 관습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개 민족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지원정책은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을 제고시켜 민족단결을 강화하여 이른바 민족지구의 사회주의 문명건설을 촉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귀납되어야 할 것이다.

I. 서 론

본 연구는 1949년 이후 중국이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민족건설(Nation Building)의 일환으로 전개해 온 소수민족정책 중 언어 및 문자,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특히 중앙정부가 소수민족의 정치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지원정책을 수립 전개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1949년부터 鄧小平의 등장까지 30여년간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한편으로는 억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전반적인 이민족에 대한 ‘한족동화정책’과 또 한편으로는 한족중심의 사회주의 체제에의 편입을 위한 ‘유화정책’이라는 두 가지의 정책으로 특징지워졌다. 그러나 실제로 鄧小平체제가 출범한 이래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즉 1970년대 후반부터 보다 적극적인 소수민족 우대정책이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었는데 이는 몇가지 동기에서 기인했다. 그 중 하나는 소수민족을 鄧小平이 국가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한 4개 현대화 정책에 동참시킴으로서 생산성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려 한 것이다. 둘째는 티베트 등지에서의 소요를 무력으로 진압한 이래 실추된 중국의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셋째는 중국의 소수민족지구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臺灣”으로 하여금 통일 후 다른 소수민족이 향유하는 소수민족 지원정책상의 혜택을 보장한다는 선전효과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Dreyer, 1992:251).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차 3중전회 이후 중국의 국가건설은 현대화 건설사업으로 옮겨지면서 개혁·개방이 주요한 정책으로 등장하였고 중국의 실질적인 민족문제도 소수민족과 민족지구가 발전하지 못할 경우 국가전체의 발전이 저해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민족문제 해결은 국가정책상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 특징지어지는 중국특유의 복잡한 민족적 연관 속에서 나타나는 민족문제에 대해 건국초기부터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중국은 이같은 민족문제¹

¹ 민족학 이론에서 ‘민족문제’는 민족과 민족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별민족 내부의 문제까지도 포함시킨다. 특히 민족문제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차별문제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민족문제는 민족관계와 민족차별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별된다. 이 요소는 정치·경제·사회·문화·언어 및 문자·생활방식과 풍속 및 습관 등 각 방면의 표현에 있어서 민족의 존

의 정확하고 성실한 대처를 통해서 민족간의 생존과 상부상조를 이룩할 수 있고, 나아가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중국은 민족정책의 기본 원칙을 ‘민족평등의 견지’와 ‘민족단결의 강화’로 선정하여 특유한 민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본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야에 제정한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 강령』에서 그 내용을 상정하고, 국가의 모법인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백하게 규정하였다.²

일반적으로 중국민족정책의 기본내용은 민족학적인 이론에 기초해서 볼 때 크게 6개 방면으로 귀납하여 볼 수 있다. 즉 ①민족평등의 견지 및 민족단결의 강화 ②민족구역 자치의 실현 ③소수민족 간부의 양성 ④소수민족 경제발전과 문화건설에 대한 지원 ⑤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 사용을 중시 ⑥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존중 등이다 (施正一, 1992:417).

본 연구는 이러한 중국민족정책의 6개 방면 가운데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 사용의 중시”와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존중”에 관한 현상과 그 정책의 기본성격과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중국의 사회안정화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한편 본 연구의 범위는 중국이라는 다민족 공동체에서 파생하는 민족문제의 내용에서 단지 언어 및 문자의 표현, 풍속 및 관습의 보존이라는 두 방면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총체적 시각에서 민족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다만 상기 두 방면의 현상과 그 정책에 대한 분석에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적으로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분석은 광의적인 입장에서 민족역사의 전과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며, 협의적 입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민족문제를 파악하여야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서설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연구자료의 사용에 있어 관변자료 일변도의 현실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료와 현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재와 발전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있다(何潤, 1992:4).

2 1982년 12월 4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각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하고 어떤 민족에 대해 차별대우와 압박하는 것을 금지하며,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성과 필요에 근거하여 각 소수민족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각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며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은 모두 자기의 언어와 글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풍습과 관습을 보존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다” (中蘇研究, 1993. 봄: 214).

II.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의 사용과 개혁에 대한 지원정책

인간은 인간의 집단속에서 태어나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그 집단의 특유한 문화를 형성하고 다음 세대에 그 문화유산을 전해간다. 이러한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언어와 문자임은 대부분의 문화인류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金芳漢, 1992:19). 즉 언어와 문자는 민족공동체의 중요특징 중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민족어문정책은 한 국가의 민족정책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차 三中全會 이후 민족어문정책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1951년부터 제기된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에 대한 정책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각 소수민족은 통신연락에서부터 일상생활, 사회·경제활동, 문화교육 나아가 정치활동 등에서 민족의 언어 및 문자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고 합당한 존중을 보장받게 되었다.

본 장은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어문정책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언어와 문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문정책 수립의 기본원칙을 확인하여 어문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1. 소수민족 언어와 문자의 현황

(1) 언어의 현황

1954년까지 확인된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는 모두 48종이었다. 한편 1960년대의 문화대혁명 이전까지 확인된 소수민족의 언어는 모두 60종 이상이 되었다³(當代中國(下), 1993:294-295). 중국의 경우, 언어와 언어 사용의 정황을 파악하여 보면 그 내용이 계속하여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를 언어의 친속(親屬)관계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면 5개의 語族, 10개의 語群, 70여 종류의 言語로 구분된다⁴(施正一, 1992:258). 즉 중국의 소수민족은 回族과 满族들이 중국어(漢語)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그들 모두가 고유한 민족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중국은 1956년 국가가 주도하여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에 대해 대규모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서 어문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반이 확립되었다.

4 중국은 비록 그 지역적 범위가 넓으나 언어의 분류에 있어 언어의 지역적 분류는 큰 의미가 없다. 이는 한지역에도 잡다한 언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金芳漢, 1992:222).

(표 1) 중국 소수민족 언어의 계통적 분류 (genealogical classification)

중국-티베트어족 (Sino-Tibetan family)	중국어군(Chinese-Mandarin)	回族, 满族들이 일반적으로 사용
	티베트-버마어군 (Tibeto-Burman)	티베트어: 藏語, 嘉戎語, 門巴語 이어: 羚語, 納西語, 傣僕語, 哈尼語, 拉祜語, 基諾語 징퍼어: 景頗語 버마어: 戴佤語, 阿昌語 미학정어: 兖語, 獨龍語, 怒語, 白語, 土家語, 珞巴語, 普米語
	장-통어군	장파이어: 壯語, 布依語, 傣語 통수이어: 晉語, 吳語, 無量語, 水語, 毛南語, 拉基語 리어: 黎語
		미야오-야오어군 (Miao-Yao)
		미야오어: 苗語, 布努語 야오어: 瑶語, 勉語 미학정어: 畲語
	미학정어군	仡佬語
	알타이 諸語 (Altaic-languages)	튀르크어군 (Turkic) 서튀르크어: 維吾爾語, 哈薩克語, 烏孜別克語, 塔塔爾語, 撒拉語 동튀르크어: 柯爾克孜語, 西部裕固語, 圖瓦語
		몽골어군 (Mongolian) 몽고語, 達斡爾語, 土族語, 東鄉語, 保安語, 東部裕固語
		만주-통구스어군 (Manchu-Tungus) 만주어: 满語, 錫伯語, 赫哲語 통구스어: 鄂倫春語, 鄂溫克語
		佤語, 布朗語, 德昂語
남아어족 (Austro-Asiatic family)	佤德昂語	佤語, 布朗語, 德昂語
	슬라브어파 (Slavic branch)	俄羅斯語
인구어족 (Indo-European family)	이란-인도어파 (Indo-Iranian branch)	塔吉克語
	남도어족 (Malayo-Polynesian family)	인도네시안어파 (Indonesian branch) 高山族語言(阿眉斯語, 排灣語, 布蠍語 등)
고립언어	京語, 朝鮮語	

자료: 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557-558

(2) 문자의 혼황

문자는 언어기록의 부호이다. 중국의 소수 민족들의 문자에 대하여는 많은 풍부한 자료가 있다. 과거부터 유전되어 온 중국의 민족문자는 모두 21개 민족의 28개 종류의 문자였다. 즉 藏文, 維吾爾文, 蒙古文, 傣文(傣仂, 傣納, 傣繩, 金平의 4종류 문자), 朝鮮文, 滿文, 彝文(涼山, 雲貴의 2종류 문자), 哈薩克文, 錫伯文, 景頗文, 苗族의 伯格理文, 納西族의 東巴文, 哥巴文, 老傈僳文, 拉祜文, 柯爾克孜文, 塔塔爾文, 烏孜別克文, 俄羅斯文, 方塊壯字, 方塊白文, 水族의 水書이다. 이 가운데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는 문자는 12개 민족의 17종 문자이고(밀줄친 문자가 해당됨), 현재 滿文, 納西族의 東巴文, 哥巴文, 水族의 水書와 方塊百文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우즈베키족(烏孜別克族)과 타타얼족(塔塔爾族)은 현재 위그르문자(維吾爾文)를 사용한다. 그리고 老傈僳文, 苗族의 伯格理文과 方塊壯字는 매우 적은 일부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中國大百科全書 (民族), 1986: 549-550).

중국 소수민족의 문자제도, 체계에 근거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象形文字, 音節文字, 表音文字로 분류된다.

〈표 2〉 중국소수민족 문자의 분류

상형문자	<u>納西族의 東巴文</u> , <u>水族의 水書</u>	
음절문자	<u>彝文</u> , <u>納西族의 哥巴文</u> , <u>方塊壯字</u> , <u>方塊白文</u>	
표음문자 (<u>字母체계에 의한 분류</u>)	古印도 字母	<u>藏文</u> , <u>傣文(4종류)</u>
	아라비아 字母	<u>維吾爾文</u> , <u>哈薩克文</u> , <u>柯爾克孜文</u> , <u>烏孜別克文</u> , <u>塔塔爾文</u>
	위그르 字母	<u>蒙古文</u> , <u>錫伯文</u> , <u>滿文</u>
	슬라브 字母	<u>俄羅斯文</u>
	조선문 字母	<u>朝鮮文</u>
	라틴 字母	<u>景頗文</u> , <u>拉祜文</u> , <u>傈僳文</u>
	독창적 字母	<u>伯格理苗文</u>

자료: 當代中國(下), 1993:297

2. 소수민족 어문 정책 수립의 기본 전제

중국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전제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다.

(1) 언어와 문자는 민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언어 및 문자의 평등은 민족 평등의 대전제이다.

이는 민족공동의 언어와 문자는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울

러 민족언어 및 문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반영 없이는 민족 평등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에 입각하여 “민족의 언어 및 문자문제에 정확히 대처하는 것은 민족 평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민족 단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고 “언어평등 없는 민족평등과 민족평등 없는 언어 평등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梁釗韜, 1985:434). 따라서 민족 언어 및 문자의 문제는 민족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즉 민족언어 및 문자는 어느 한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한, 어떠한 역사변천 중에서도 그대로 존속된다. 그러므로 민족 언어 및 문자는 결코 계급적인 대상이 될 수 없는 장기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민족적 요소인 것이다.

(2) 민족언어 및 문자의 사용은 민족의 생산발전의 전제가 된다.

민족언어 및 문자의 사용만이 민족 자신의 역사와 생산관계 그리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으며, 아울러 민족내부의 통일과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스탈린의 이론을 통하여 “민족언어 및 문자의 사용은 한 민족의 진정한 문화, 정치와 경제발전의 거대한 진보를 이루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梁釗韜, 1985:434). 이는 과거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중국내에서의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차별, 제한, 금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민족간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분규 등을 발생하게 하여 중국의 민족단결과 진보에 장애 요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이었다.⁵

그러므로 민족언어 및 문자의 사용은 각 민족이 각종 정보나 과학지식을 교환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민족 언어 및 문자의 사용은 민족내부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어 민족문화와 교육사업의 발전을 가속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문화를 일정수준까지 높일 수 있게 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현대과학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오늘날 중국이 목표로 하는 4개 현대화(四個 現代化: 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 방면의 현대화)의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5 중국역사에서의 몇가지 선례를 확인하여 보면, 1930년대 운남성의 麗江 나시족 지구에서 조직된 『풍속개량위원회』는 개량 대상 중의 하나로 소수민족 언어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실제로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사용을 제한시켜 소수민족 문화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었었다. 또한 1945년대에는 신강성에서 위그르어의 사용제한을 위해서 위그르어 간행물에 대한 출판을 제한했고, 교육현장에서도 위그르어의 사용을 금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민족차별 정책은 실제로 소수민족의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방면까지도 정상적 활동과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當代中國(下), 1993:298).

3.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정책의 분석

중국은 多民族, 多言語, 多文字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있어서 소수 민족에 대한 언어 및 문자 정책은 민족정책의 상징적 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만약 어느 한 민족이 언어 및 문자의 사용에 있어서 억압이나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그 민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 있어서도 다른 민족과 평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중국은 민족간의 크고 작은, 先進·後進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그들 소수민족의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그들 민족의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사용·개혁 등의 지원정책을 분석하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민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사용의 자유를 강조한 정책

중국은 1949년 9월 29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12개 소수민족 대표도 참가)에서 통과시킨 『공동강령』에서 “언어 및 문자를 발전시킬 자유”를 규정한 이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 (민족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 同 제121조 (자치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지역에서 통용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언어 및 문자의 사용), 同 제134조 (민족언어 및 문자로써 사법적 권리행사) 등을 명문화하였다.⁶

이러한 내용의 법제화는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는 중국어(漢語)와 중국문자(漢文)와 평등한 관계를 향유함을 규정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국가 모법상 언어 및 문자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민족 평등의 원칙을 구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헌법 규정의 관철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법』에 헌법과 상응한 규정을 만들었다. 즉 제10조(헌법 제4조에 상응), 제21조(헌법 제121조에 상응), 제47조(헌법 제134조에 상응),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6조의 “소수민족들이 통용하는 문자로써의 교육실시” 등이 있다⁷.

따라서 이러한 법 규정들은 민족평등의 원칙을 충분히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 소수 민족들이 그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민족언어 및 문자의 사용에 대해 국가의 보호와 협조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중국의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사용의 정황을 보면 그 사용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

6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9조의 ‘국가는 전국에서 통용되는 普通話를 보급한다’는 규정은 소수민족의 보통화 학습을 강제한 것이 아니고 각 민족들이 자원하여 보통화를 학습할 수 있는 보통화 학습의 자연적 추세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으로 이해된다(施正一, 1992:274).

7 이러한 규정 이외에도 “교육의 현장에서의 민족언어 및 문자 사용”,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의 행정업무”, “각종 회의에서 민족언어 및 문자 사용의 권리”, “자치지방에서의 민족어 방송, 신문, 출판사업의 실시” 등의 각종 법률 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음을 알 수 있다(施正一:271). 그 한 예가 소수민족의 언어로서의 방송사업의 추진이다. 즉 중앙인민방송국에서는 몽골어, 티베트어, 카자흐어, 조선어의 5종 소수민족 언어방송을 하며, 운남성에서는 라이어, 징퍼어 방송을 그리고 사천성에서는 이족어 방송을 하고 있다(當代中國(下), 1993:299).

(2) 소수민족 문자의 제정과 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1) 문자제정과 개혁 임무의 제기

문자제정과 개혁에 대한 논의는 1951년부터 제기되었다. 1951년 2월 중국 政務院은 중앙민족사무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민족사무에 관한 6개항을 결정하였는데, 그 중 다섯 째항의 내용을 보면, “정무원의 문화교육 위원회 내에 「민족언어 및 문자 연구 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에 관한 연구사업을 지원한다. 아직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문자를 제정하도록 도와주고 문자가 완전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점차적으로 그 문자가 보강되도록 도와주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北京에 『民族語言文字研究指導委員會』⁸가 성립되었다.

1954년 5월 이 위원회는 정무원에 “아직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문자제정을 도와주는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민족의 언어는 있으나 아직 문자가 없거나 혹은 통용되는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스스로 선택한 문자를 근거로 그들에게 일종의 표음문자(表音文字)를 제정하여 주거나 또는 그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한 종류의 문자를 스스로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건의하였다(當代中國(下), 1993:303).

정무원은 이 건의를 허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와 『中央民族事務委員會』에 맡기었다.

이러한 절차에 기초하여 1956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회의』의 정치보고에서 “문자없는 소수민족에 대하여 그들의 문자를 제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⁹ 이에 대해 최초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1945-66년)이었던 劉少奇는 같은 해 9월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¹⁰ 1958년 1월 周恩來 수상은 “당면한 문자개혁의 임무”를 발표하여 소수민족의 문자제정과 개혁에 대한 지원 필요성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¹¹

8 본 위원회는 주임의원 邵子力, 부주임 위원 陶孟和, 劉格平 외 위원 17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1955년에 이르기까지 壮, 布依, 水, 苗, 瑶, 彝, 傣, 傣儂, 景頗, 哈尼, 佤, 蒙古, 維吾爾 등 민족의 언어에 대해 초보적 조사를 하여 소수민족의 문자제정과 개혁에 대한 정책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9 한편 周恩來(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수상 겸 외상)도 “국민경제 발전 제2차 5개년 계획의 전의에 관하여”를 발표하여 민족문자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10 劉少奇, 1956년 9월 15일,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向第八次全國代表大會 政治報告』의 정치생활 부분에서 강조.

11 1958년 1월 10일의 이 보고서에 의하면 周恩來는 “금후 각 민족의 문자제정이나 개혁시에는 원칙상 라틴문자를 기초로 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즉 1951년 이후 195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지원정책 중 소수민족 문자의 제정과 개혁은 당시의 이른바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當代中國(下), 1993:302-303).

2) 민족문자 제정과 개혁에 대한 계획

1955년 12월 북경에서의 『全國民族語文科學討論會』를 시작한 이래 민족문자의 제정과 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계획이 착수되어 1960년에 이르기까지 민족언어 및 문자에 대한 조사 및 개혁의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전 중국을 대상으로 한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조사는 1956년부터 중국과학원과 중앙민족사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후 700여인의 전문가가 동원되어 16개 성과 자치구를 상대로 하여 조사되었다. 2년여 동안의 조사연구를 통해 근 40개에 달하는 소수민족의 언어 및 문자를 계통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민족문자를 제정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조사연구는 중국역사상 처음 이루어진 것 이기도 하였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556).

이 연구에 의해 ①중국 소수민족의 문자는 라틴字母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②그 音이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어(漢語)와 같거나 비슷한 문자는 가능한 한 한어병음(漢語拼音)방안에서 해당되는 자모를 사용하여 표시하며 ③각 민족의 문자 특히 언어관계에 밀접한 문자는 자모형식과 병사(병寫)¹²규칙상 가능한 한 일치시킨다는 원칙 등을 확정하여 1957년 12월 10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이로써 중국 소수민족의 문자제정과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수립되게 되었다(當代中國(下), 1993:304).

3) 장족(壯族)문자의 제정과 기타 민족의 문자 개혁 정책

‘廣西省 桂西縣 장족 자치구’는 자치구 인구의 70%가 장족이며, 이를 거의 모두 장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일부 漢族, 야오족(瑤族), 미야오족(苗族)도 장족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족은 문자가 없어 문자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한 상태였다.

중국과학원 언어연구소는 ‘桂西 장족 자치구’ 인민정부와 협조하여 『장족 언어 및 문자연구 지도위원회』를 성립시켜¹³, 장족문자 제정의 구체적 연구를 시작하여 “장족문자 제정방안”이 1957년 12월 10일에 국무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국은 이 문자가 ‘광서성 장족 자치구’를 비롯한 각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마련하였다. 비록 1960년대 문화대혁명 기간 중 장족문자의 보급이 일시 중단이 되기도 하였으나, 1980년 ‘광서 장족 자치구’에서는 ‘壯族文字’의 보급 시행을 재차 실시하고, 1982년 3월 3일에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장족문자 수정안』을 정식으로 그들의 문자로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장족 문자는 장족 자치구의 53개 縣(市)에서 50여만명이 사용하게 되었고, 1986년 현재 약 25만명이 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當代中國(下), 1993:305).

12 ‘병음자모’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것을 말함

13 이 지도위원회는 북경대학의 원자화(袁家化)교수가 주축이 되어 장족문자 제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당시 중국과학원 언어연구소 소장은 언어학자인 러창페이(羅常培)이었다.

장족의 문자제정 이외에, 푸이족(布依族)등 8개 민족 문자의 제정 및 개혁정책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布依文(Bouyei writing System): 1956년 11월부터 계속 논의된 문자방안이 1985년 8월 貴州省 인민정부의 비준을 얻어 사용(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59).
- ② 苗文(Miao writing System): 1956년 11월 貴陽에서 개최된『苗族語文科學討論會』에서 제기된 黔東方言 苗文(貴州省 동부지역에서 쓰는 언어의 苗族문자), 湘西方言 苗文(湖南省 서부지역에서 쓰는 언어의 苗族문자), 전東北 方言 苗文(雲南省 동북지역에서 쓰는 언어의 苗族문자), 川黔滇 方言 苗文(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지역에서 쓰는 언어의 苗族문자)과 같은 4종류 문자방안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1957년 7월에는 이 4종류의 문자방안이 중앙민족사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296).
- ③ 彝文(Yi writing System): 1956년 12월 成都에서 개최된『彝族科學討論會』에서 새로운 彝文 방안이 논의되고 개혁에 착수하였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498).
- ④ 納西文(Naxi writing System): 1957년 3월 昆明에서 개최된『雲南省 小數民族語言科學討論會』에 문자 개혁 방안이 제시되어 納西族의 병음방안이 마련되었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344-355).
- ⑤ 傈僳文(Lisu writing System): 1954년 문자개혁 방안이 제기되었고, 1957년 3월 昆明의『운남성 소수민족 어문과학 토론회』에서 문자개혁 내용이 확정되었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242).
- ⑥ 哈尼文(Hani writing System): 1957년 3월 곤명의『운남성 소수민족 어문과학 토론회』에서 哈尼文의 두 종류 문자 개혁방안(哈雅方言文字, 碧雅方言文字)이 마련되었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242).
- ⑦ 佤文(Va writing System): 1957년 3월 곤명의『운남성 소수민족 어문과학 토론회』에서 문자개혁 방안이 마련되었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442-442).
- ⑧ 통文(Dong writing System): 1958년 8월 貴陽에서 개최된『통족 언어 및 문자과학 토론회』에서 문자개혁 방안이 마련되고,同年 12월 비준을 얻어 시행이 추진되었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99).

이상의 문자 개혁방안은 1978년『중공 11차 삼중전회』이후, 布依文, 苗文, 傈僳文, 哈尼文(哈雅방언문자), 佤文, 통文, 拉祜文 등이 본격적으로 재시행, 보급되었다. 그리고 개혁된 문자들은 각 소수 민족들의 환영을 받았고 학교교육 현장에서 또는 성인들의 문맹퇴치에 효과적인 작용을 나타내었다. 한편 이러한 개혁된 문자들을 사용한 번역, 출판, 신문 등의 사업도 아울러 발전적인 양상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當代中國(下), 1993:306-307).

또한 민족문자의 제정과 동시에 민족 고유문자의 개선과 개혁의 작업도 주목된다. 1950년대의 라후족과 징퍼족, 따이족 등의 고유문자를 개선하였다. 한편 아라비아 字母를 기초로 한 위그르족과 허사크족의 문자는 라틴字母를 기초로 한 “新維吾爾文”과 “新哈薩克文”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고유문자의 개선 결과 그 효과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로 확인되었다(當代中國(下), 1993:307). 그러나 西雙版納 땅이 文은 그 개선의 폭이 비교적 커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986년 自治州의 결정에 따라 고유의 땅이 文으로 환원 사용하도록 하였다. 新維吾爾文과 新哈薩克文은 1976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82년 고유문자로 환원되었다. 그외, 四川 涼山 이족(彝族) 自治州도 고유의 彝文을 개선하려 하였으나, 20여년의 실험보급 결과 부작용이 많아 1980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고유의 彝文으로 환원하였다.

이와같은 민족문자의 제정과 개혁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는 민족언어 및 문자의 사용과 개혁문제는 정치적 평등을 구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며, 나아가 민족의 단결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이 문제는 민족의 발전과 진보와도 연결되는 하나의 과학적 문제이기도 한다. 따라서 민족언어 및 문자의 사용, 개혁 그리고 제정은 마땅히 그 고유한 규율을 따라야 하며, 사용자의 의사, 감정, 습관을 존중하여야 한다(當代中國(下), 1993:308).

(3) 모국어 교육과 이중국어교육의 상호학습 권장 정책

1) 모국어 교육

1951년 9월 개최된 제1차 전국 민족교육 업무회의에서 “몽고, 티베트, 조선, 위그르, 허사크의 민족과 같이 통용되는 문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민족은 모든 교육현장에서 그들의 민족언어 및 문자로써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소수민족의 거주지역에서 모두 관철되고 있다.¹⁴

한편 중국은 민족어문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각 민족 문자로 쓰여진 각종 교과서, 교재의 편찬을 독려하고 있다. 즉 관계지역에서의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각종교과서와 교재의 번역, 출판, 발행 이외에 재정적인 뒷받침도 하고 있다.

또한 중국공산당과 각 인민정부는 민족지구의 문맹퇴치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농촌과 소수민족 지구를 중심으로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 운동을 중심적으로 전개하였다. 1988년 2월 국무원은 “문맹퇴치 업무조례”를 반포하기도 하였다. 이 활동에는 민족어문의 보급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내몽고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1950년대초 문맹 및半문맹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8년 조사에 의하면 문맹률이 13.7%로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⁵

14 예를 들어 ‘내몽고자치구’의 초등학교에서는 몽고어로서 수업을 하고 있다. 몽고족은 7세부터 11세 까지 어린이의 입학률이 96.8%에 달하고 있다. 이중 몽고어로서 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은 91%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는 이 지역의 漢族學校의 비율보다도 높은 것이다(當代中國(下), 1993:309).

15 소수민족지구에서의 문자보급의 팔목할 만한 기타 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四川省 涼山 彝族自治州의 11개 彝族 집거縣 중 8개 縣이 문맹이 없는 지역이 되었고, 貴州省 松桃 ‘미야오족 자치현’의 미야오족, 통족, 거라오족(赫羅族)과 투자족(土家族)의 인구비율은 전체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소수민족은 적극적으로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여 1980년도 U.N.(국제연합)의 국제 문

2) 이중국어 교육의 권장

이중국어 교육이란 소수민족 학생이 그들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중국어(漢語)로서도 교육 받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각 소수민족이 본 민족의 언어 및 문자로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중국어로도 교육을 받는 것은 각종 현대과학 문명의 지식을 학습하고 각 방면의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리고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데 매우 유리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소수민족 지구의 학교교육 과정에 있어 중국어과정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두어 소수민족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같은 소수민족 지구의 이중국어 교육은 대체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모국어 위주의 교육을 하다가 국민학교 2학년때부터 중국어과목을 개설하는 유형으로, 내몽고 지역 몽고족의 일부분, 新疆의 위그르족, 연변의 조선족이 모두 이에 속 한다.

둘째, 국민학교 저학년 단계에서는 모국어 위주로, 고학년이나 중학교 단계에서는 중국어 위주로 교육하는 형태로, 廣西의 壮族 일부분, 涼山 彝族, 西雙版納과 德宏의 라이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셋째, 중국어나 해당지역의 기타 소수민족의 문자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형태로, 본민족의 언어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된다. 이러한 정황은 민족언어는 있으나 문자가 없는 지역의 민족 또는 민족문자는 있으나 통용되지 못하고 있는 소수민족 지구의 국민학교에서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맹퇴치 활동에 있어 이중국어 교육을 채택하는 민족지구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¹⁶

(4)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연구와 인재양성의 지원 정책

1) 소수민족 어문 연구의 성과

일부 소수민족 가운데는 오래전부터 그들 민족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고유 언어 및 문자를 연구하여 많은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티베트족 학자 圖彌三菩찰은 藏文이 제정된 이후 『授記根本三十頌』과 『性人法』등 8권의 문법책을 저술하였다. 또한 위그르족 학자 馬赫穆德·喀十甘里는 『突厥語詞典』을 저술하였다. 몽고족 학자 朔思一吉斡節兒는 14세기 초 『蒙文啓蒙』을 써 몽고문자의 正字法 기초를 확립하였다.

明·清 두 시대에 걸쳐 민족語文과 중국어를 대표한 詞彙(어휘)과 公文總集인 『華夷譯語』가 계속 출간되었다. 清代에는 滿·藏·蒙古·維吾爾·漢의 5종류 문자를 대조한

맹퇴치 모범상을 획득하기도 하였다(當代中國(下), 1993:310).

¹⁶ 예를들면 貴州省 黔東南 苗族·侗族 自治州의 黎平縣 中潮區 三龍鄉은 1985년부터 문맹퇴치 야간 학교를 운영하였다. 수업일수 110일 중 60일은 통文으로 50일은 중국어(漢文)으로 수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當代中國(下), 1993:311).

『五體清文監』이 편찬되었다(當代中國(下), 1993:311).

이러한 성과는 모두 중국 민족언어 및 문자 연구에 있어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기도 하였다.

2)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사업에 종사할 전문인재의 양성

1950년 정무원은 제16차 정무회의에서 비준된 『中央民族學院 시행방안의 기획』은 언어 및 문자 학과를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인 자로서 소수민족 사업을 희망하는 漢族학생이나 같은 학력의 소수민족 학생으로 각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를 특별히 전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민족구역자치와 민족 정책실시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시행방안에 의해, 중앙민족학원과 각 지역의 지방 민족학원에 언어 및 문자학과 또는 단기 특별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각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에 대한 교육, 과학연구 그리고 번역인력을 양성하게 되었다.

또한 각 민족 자치지방의 단과대학과 종합대학, 예를 들면 內蒙古大學, 新疆大學, 西藏大學, 延邊大學 또는 각 자치지방의 사범대학과 전문대학에서도 모두 민족언어 및 문자와 관련된 학과나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었다(當代中國(下), 1993: 312).

중국과학원은 1950년 언어연구소를 설립하고 1957년에는 소수민족 언어연구소를 설립하였다.¹⁷ 그리고 각 지역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문과) 그리고 민족학원에서도 민족언어 및 문자 연구부나 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사업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III.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의 보존과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

중국의 각 소수민족들은 장기간의 역사발전 중 특수한 자연환경과 생활조건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풍속 및 관습을 형성하였다. 그것들은 각 민족의 의·식·주 문제, 생산활동, 복식, 혼인, 상장(喪葬), 예의범절, 명절, 경축일, 절기(節氣), 오락, 취미생활 그리고 손님접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 애호하는 사항과 금기사항을 포함한 풍조와 풍습 등이다. 그러므로 민족의 풍속 및 관습은 각 민족의 역사전통, 경제생활, 문화예술, 심리와 감정 그리고 종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梁釗輯, 1985:435). 이 풍속 및 관습은 하나의 민족과 타 민족간을 구별하기 위한 중요한 상징적 표지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한편 민족의 풍속 및 습관은 일단 형성된 후 그것은 곧바로 그 민족이 공인한 바 되고, 이를 민족 전체가 공동으로 준수하며 민족공동체를 유지하고 공고히하는 작용을 하여 왔다. 그러므로 매개 민족의 대중들은 자기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해 매우 깊고 두터운 우호적 감정을 갖고 있다. 그들은 민족의 풍속 및

¹⁷ 이 두 연구소는 1962년 『민족연구소』와 합병되었다.

관습에 대한 존중을 바로 그 민족에 대한 존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바로 그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으로 간주된다. 곧 각 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처리는 민족평등과 단결에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후 중국은 소수민족의 풍속및 관습에 대해 존중과 성실한 대처를 민족정책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여러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상징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장).¹⁸

1. 풍속 및 습관의 유래와 그 특징

중국 각 민족의 풍속 및 관습은 모두 그들이 처한 자연환경, 경제생활과 생활조건, 문화전통 나이가서는 종교적 영향 등으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각 민족이 처한 여러 조건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풍속 및 습관에 있어서 표현형태 또한 큰 차 이를 나타낸다. 그 형성의 근원 및 특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풍속 및 관습의 유래

1) 자연환경의 영향 : 각 소수민족들은 그들 주거지역의 자연, 지리, 기후조건 등 물리적 · 생물학적 환경(자연)에 대한 적용과정은 점차적으로 그들만의 풍속 및 관습을 형성하게 된다(Bock, 1993:178).

2) 경제 · 사회적 생활환경의 영향 : 각 민족은 각기 경제적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생산력과 발전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제적 조건과 특성도 다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각기 다른 풍속 및 관습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물과 풀을 찾아서 이동하며 사는 풍속”을 가지고 있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소수민족은 생활양식에 있어 그들만의 특징적 방법을 갖고 있다. 즉 이들은 몽고파오(蒙古包:몽고인의 이동식 천막집)와 장박에 거주 (蒙古簡史, 1985:202)하고 소와 양의 고기와 젖을 먹으며 나이차와 수요우차¹⁹를 마시는 관습이 형성되었다. 흑룡강과 송화강 그리고 우수리강 일대에 거주하는 허저족(赫哲族)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기에 어류를 즐겨 먹고 있으며(赫哲族簡史, 1984:221-222), 따싱안령(大興安嶺)지역에

18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언어 및 문자에 대한 규정과 함께 1949년의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공동강령』에서 그 기본적 성격이 확립되었다. “풍속 및 관습의 유지 및 개혁의 자유”, “존중” 등의 성격은 『헌법』이외에 『刑法』을 비롯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中華人民共和國地方各級人民代表和地方政府組織法』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19 나이차(내茶)는 전차(전荼:찻잎을 쪘어 벽돌 모양으로 굳힌 차)를 양젖에 넣어 끓인 茶. 수요우차 (수油茶)는 더운차에 수유(수油:소 · 양의 젖을 바짝 졸여서 만든 기름)를 넣은 것으로 티베트족, 몽고족들이 애용한다.

서 생활하는 어룬춘족(顚倫春族)은 과거부터 대부분 수렵생활로 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사냥한 짐승을 먹고 노루가죽의 외투를 즐겨입는 특징이 있다(顚倫春族簡史, 1983: 186-188). 한편 중국의 남부 지역의 소수민족과 조선족은 쌀밥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논벼를 심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각 민족의 경제·사회적 생활환경은 점차적으로 민족의 특색있는 풍속 및 관습을 형성하게 한다.

3) 민족의 역사발전 중 중요사건과 인물에 대한 동경 : 각 민족은 오랜 역사발전 과정 중 과거의 아름다웠던 생활, 갑자기 밀어 닥쳤던 재난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과거의 갖가지 사건과 추앙되었던 인물²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각 민족이 특정한 습속과 기념일 등을 정하여 이러한 추억들에 대한 회고를 하게 함은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발휘하게 하고 민족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따이족의 ‘灤水節’(Water-sprinkling festival: 음력 3월 중순), 바이족(白族)의 ‘火把節’(음력 6월 25일)과 ‘要海會’(음력 8월 23일), 장족의 ‘歌墟’(음력 3월 3일)과 ‘屹立節’(음력 정월 13일)²¹, 미야오족의 ‘四月八’와 ‘간歌節’(음력 1월 6일), 야오족(瑤族)의 ‘坦勒貴節’(음력 7월 5일) 등이 그것이다(梁釗韜, 1985:437). 이러한 민족사를 반영한 풍속 및 관습은 역사발전 과정 중 줄곧 각 민족의 민족정서를 확립하게 하여 민족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4) 민족 전통문화의 표현 형식과 관련된 영향 : 각 민족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민족 대대로 계승되어 온 고유한 건축양식, 문학, 음악과 춤, 체육활동, 각종 공예활동 등)는 언제나 민족의 풍속 및 관습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민족의 전통문화는 주로 설(새해 첫날)명절이나 각종 경축일, 결혼예식, 성대한 모임(盛會)등에서 표현된다. 이때의 표현형식이 바로 풍속 및 관습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장족의 ‘對歌’, 위그르족의 ‘麥西萊甫’, 티베트족의 ‘熱巴’, 미야오족의 ‘蘆笙舞’ 등의 음악과 춤, 몽고족의 ‘好來寶’, 따이족의 ‘贊哈’, 허저족의 ‘伊瑪堪’등의 설창²², 조선족의 널뛰기와 그네타기, 하사크족의 ‘姑娘追’, 동족의 ‘창花砲’ 등의 체육활동이 있다. 또한 민족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의복과 각종 수공예품, 수공예품의 특징적 기술 (나염염색, 칠기 등) 그리고 전통적인 건축상의 예술적 특징 등이 모두 민족 전통문화의 구성부분이고 민족의 풍속 및 관습의 중요 영역들이다(當代中國(上), 1993:442-444).

5) 종교신앙과 미신과 관련된 영향 : 중국 소수민족의 풍속과 관습의 유래는 민족 특유의 종교신앙 및 미신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민족은 그 풍속의 직접적 근원이 종교에 있는 경우도 있다.²³ 또한 대부분 소수민족의 습속과 경축일이나 명절은 거

20 동경인물은 주로 외래의 침략세력에 항거하고 주거지역(주로 변경지역)을 보호했던 용감한 인물들과 근면하고 슬기로운 선조들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21 ‘초리제’(屹立節)는 ‘환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광서성 용주(龍州) 일대 장족출신의 용감하고도 결출한 자녀들이 프랑스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음력 정월 30일에 개선 귀가하였다. 군중들은 마침 춘절(春節)을 지내면서 이들을 환영하게 되었는데, 이후 이러한 전래가 풍습이 되어 점차적으로 하나의 풍속을 형성하게 되었다.

22 설창(說唱)은 운문(韻文)과 산문(散文)으로 꾸며져 있는 민간문예를 말하다.

의 모두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미신과 관련된 풍속 및 관습은 대부분 원시사회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족의 각종 기피사항(Taboo)과 혼인과 장사(葬事)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관한 종교신앙의 영향은 이슬람교와 불교(그 중에서도 라마교)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梁釗韜, 1985:438).

(2)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의 특징적 요소²⁴

- 1)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은 구역(지역)별로 그 차이가 비교적 크다. 동일민족이라도 거주지역이 다르고 자연과 사회적 조건이 다른 경우 풍속 및 관습상 그 표현 형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미야오족은 각 지구의 민족명절외에 의복의 색채, 복장의 모양새, 머리의 모양(헤어스타일), 옷차림 등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선호가 있다. 그러므로 과거 미야오족은 “白苗”, “青苗”, “ 긴치마苗”, “짧은치마苗” 등 각각 다른 호칭이 있었다(當代中國(上), 1993:444).
- 2) 소수민족의 어떤 풍속 및 관습의 표현형식은 왕왕 경축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전통적 형식으로 출현된다. 즉 어느 민족은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통적 형식을 표현하는 경축일을 지키고 있다. 야오족의 ‘盤王節’, 조선족과 하니족(哈尼族)의 ‘老人節’, 따이족의 ‘彩蛋節(어린이날)’, 두통족(獨龍族)의 ‘잡雀蛙節(설 명절)’, 거라오족의 ‘后生節(청년절)’ 등이 그러한 경축일이다. 또한 자기 민족의 전통적 설(새해 첫날)명절 (즉 티베트족의 ‘藏歷節’, 이족의 ‘彝族年’ 등)을 지키기도 한 어떤 민족들은 그들의 통일적인 생산활동과 집체적 병충해 소독, 집중 대청소 및 위생을 위해서 전개하는 각종 전통적 대중성의 오락, 문예, 체육활동을 전개하고 대부분 경축일의 형식을 빌어 진행하고 있다(當代中國(上), 1993:445).
- 3) 소수민족의 경축일은 대부분 아름다운 전설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남부 지역 이족, 바이족, 하니족, 나시족, 리수족 등의 ‘火把節’전설²⁵, 따이

23 이슬람교 신도들은 식용 돼지를 거부한다. 아울러 ‘開齋節’(이슬람교 의식인 Ramadan이 끝나는 날로 육식을 시작하는 절기)과 ‘宰牲節’(이슬람교의 가장 중요한 祭日의 하나로 이슬람력 12월 10일에 해당된다. 이날 소, 양, 낙타 등을 희생시켜 신에게 바친다.)등은 모두 이슬람교의 종교신앙에서 나온 풍속 및 습관이다. 한편 티베트족의 ‘雪頓節’도 미신과 관련이 있는 풍속이다.

24 문화인류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볼 때 중국소수민족 풍속 및 습관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微視的으로 비일치성이 있다. 풍속 및 관습의 유래를 참고할 때 비일치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총체적 관점으로는 공동적 특성이 있다.(특히 혼인의 형식이나 장의 풍속에 잘 나타남) 셋째, 변화성 : 역사발전, 사회변혁에 따라 민족문화와 지리환경이 다른 민족의 풍속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 넷째, 작용성 : 풍속 및 습관의 구속력은 민족의 경제, 사회, 예술, 문학 등 각 방면으로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何潤, 1992:29-32).

25 ‘火把節(torch festival)’은 햇불에 불을 붙이는 의식이 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이 절기는 음력 6월 25일을 전후하여 3일간 계속된다. ‘火把節’은 ‘불(火)’에 대한 숭배사상과 연관된다. 또한 이 절기는 불을 사용하여 병충해를 막아 농작물의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기원에서부터 발

족 신년 경축일인 ‘瀨水節’전설 등이다.

4) 대부분 소수민족들은 노래와 춤에 대한 재능을 갖고 있어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은 노래와 춤 그리고 오락활동과 체육활동 등을 동반한다. 소수민족들은 특별히 경축 일과 성회(盛會)의 표현은 매우 열렬하여 대부분 민족의 민간체육활동과 문화오락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몽고족의 ‘那達慕大會(nadam fair : 那達慕는 몽고어로서 그 의미는 ‘오락,유희’임)’은 몽고족의 노래와 춤, 씨름(레스링), 경마, 활쏘기겨루기 등의 전통적인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설창(說唱), 잡기(雜技 : 춤과 노래, 요술, 성대묘사, 만담 따위) 또는 기타 문화체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다²⁶ (何潤, 1992:30). 또한 조선족의 그네뛰기, 널뛰기, 미야오족의 ‘龍船節’행사²⁷도 대표될 만하다. 이러한 활동들은 1년에 한번정도의 대중성 문예 및 체육활동을 통해 집체적인 민족 애호의 경축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생활에 대한 애착과 정신적 만족을 충분히 진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 특색의 풍속들은 각 민족 개체에게 용감하고, 생활에 기지를 발휘하고, 체질을 단련하도록 하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2.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지원정책 분석

중국은 모법인 『헌법』에서부터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의 유지와 개혁의 자유’를 명백히 규정하여 소수민족 풍습 및 관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을 존중하고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을 추구하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석하면 크게 ‘존중’과 ‘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된다.

(1) 풍속 및 관습의 존중을 위한 정책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기본원칙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이외,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1979년 7월 제 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²⁸ 등에 규정되어 있음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생했다고 한다. 현재 운남성 이족지구에서는 “횃불에 불을 붙이는 것은 지하의 불을 인출하고 사악한 것을 제거하고 농작물의 성장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火把節’전설이 유행되고 있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188).

26 내몽고지구 몽고족의 전통적 군중 집회인 이 대회기간 중 몽고인들은 서로 손님들을 초청하고 술 대접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원하여 준다. 대회는 일반적으로 매우 성대하게 여러 날 계속된다. ‘那達慕大會’는 몽고족의 가장 중요한 경축일 중 하나이다.

27 원래는 중국 동남 연해지역과 서남의 水鄉지구에서 유행되는 풍속이었다. 단오절에 뱃머리에 용머리를 장식하고 배 경기(배를 저어 목적지까지 빨리 도달)를 함.

28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제35조의 규정을 참고하면,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는 것은 현(縣)급 이상 지방의 각

중국은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을 존중하는 민족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구체적 조치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1) 경축일과 명절에 관하여 : 정무원이 1949년 12월 제정한 『전국의 설 명절 통일과 기념일·민족명절에 대한 휴일조치』를 비롯하여 1950년 12월 공포된 『이슬람교 인민의 3대 명절에 식용에 필요한 소와 양의 도살을 인정하고 도살세 징수의 면제, 그리고 검사표시의 완화에 관한 훈령』, 무역부의 1952년 7월 『소수민족의 설과 민족명절에 대한 우대 결정』 등이다. 중국은 이러한 규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소수민족의 주요명절에 대한 휴일조치, 경축활동장소의 제공 아울러 물자의 특별공급(주로 식료품)에 대한 보장 등으로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각 소수민족의 경축일 기간에는 중앙정부의 여러 지도급 인사들이 소수민족의 경축행사와 각종 활동에 직접 참가하여 민족의 풍속 및 관습을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중앙정부와 소수민족과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만드는 것이고 동시에 민족간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하는 작용도 하게 되는 것이다(當代中國(上), 1993:447).

2) 경축일 특별소요물자의 공급 : 중국은 경축일에 보통 부족하기 쉬운 소수민족 생활에 있어 특별히 요청되는 수요물자(주로 식료품)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공급하였다. 만약 배급을 받고자 하면 '副食本'(부식품구입통장)이 필요했다. 즉 이스람교를 믿는 소수민족들의 식용 소·양고기, 조선족의 식용 쌀, 몽고족의 식용 볶은 쌀(炒米), 티베트족의 식용 잠파²⁹ 등 그리고 목축업에 종사하는 소수민족과 기타 소수민족이 마시는 차(茶葉)등에 대한 조직적인 조달과 공급조직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1986년 10월, 국무원이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雜居, 散居소수민족사업의 성취를 위한 보고에 대한 회신 형식으로 확정된 것이다.³⁰

3) 혼례와 상례에 관한 지원 : 각 소수민족의 혼례습속은 민족자치지방의 『중화인민공화국 혼례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존중되고 있다. 상례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火葬(cremation)'을 권유하지만, 티베트족, 나시족 등의 '天葬(exposure burial, 또는 鳥葬이라고도 함)', 일부 티베트족과 먼파족(門巴族)의 '水葬'³¹, 서남, 동북부 지역의 '樹葬'³² 등의 풍속을 존중하고 특히 '土葬(burial into earth, 또는 埋葬이라고도 함)'을 하는 이슬람

급 인민정부의 직원 중 하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9 잠바(잠바): 티베트족의 주식에 속하는 것으로 쌀보리를 볶은 가루를 수요우차(수油茶)나 쌀보리로 빚은 술에 개어 먹는 경단임.

30 1987, 4, 17. 中共中央國務院批轉『關於民族工作幾個重要問題的報告』的通知, (當代中國(下), 1993: 547-561).

31 Water burial : 단지 재화를 당하거나 흉사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나 전염병에 의해 죽은 사람들을 장사지내는 풍습(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405).

32 Tree burial 또는 風葬이라고도 함 : 구체적인 장사법은 여러 종류이다. 어떤 경우는 나무 위에 나뭇가지로 새 등지처럼 지어 놓거나 또는 나무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 죽은 사람을 옮겨 놓는 풍속이다. 서장지역의 로파족(珞巴族)과 동북지역의 허저족, 어룬춘족들의 장의 풍속이다(中國大百科全書(民族), 1986:403-404).

교를 믿는 민족에 대해서는 각 자치지방에서는 그들의 공동묘지의 건립을 도와주고 장의 일체를 관할 할 수 있는 장의사무소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4) 기타 지원 : 한편 소수민족들의 금·은 장식품 착용습관에 대한 배려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각 민족이 애호하는 장식품 패용을 위해 해당지역에 금·은의 특별공급을 단행하여 이들의 풍속 및 관습을 존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79년 금·은 장신구의 가격이 상승하자 국가는 금·은 특별공급을 실시하였다. 이는 소수민족의 금·은 장신구 마련을 위한 금·은 배급 판매가격을 실시하여 원래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금·은 장신구 공급에 차질을 갖지 않게 하는 특별조치를 취하였다(當代中國(上), 1993:448).

5)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을 저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 중국은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을 저해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교육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정당한 신앙의 자유와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의 침범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처벌 내용을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다(當代中國(上), 1993: 448).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의 존중에 대하여는 이미 광범위하게 계몽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을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묘사하거나 왜곡보도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하여 1983년과 1986년에는 국가민족위원회에서 『선전보도와 문예창작에 있어서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에 관한 정확한 대우를 위한 통지』,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에 관한 신중한 대우를 위한 통지』 등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의 소수민족 풍속 및 관습을 존중하고 민족간의 단결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當代中國(上), 1993:449).

(2) 풍속 및 관습의 개혁을 위한 정책

장구한 역사의 발전과정 중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도 사회제반 조건의 변화에 대하여 발전 변화되었다. 중국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개혁문제는 먼저 毛澤東, 周恩來의 논술에 의해 그 당위성과 방법론이 제기되었다. 첫번째가 바로 1950년 6월 중공 제 7기 3종 전회에서 毛의 「不要四面出擊」이라는 연설에서 “소수민족지구의 풍속 및 관습은 개혁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소수민족 자신들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毛澤東, 1977:23)는 것이었다. 그 후 1957년 8월 周는 「우리나라 민족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특히 문화방면에서 풍속 및 관습은 쉽사리 개정되어서는 안된다”, “풍속 및 관습은 한 민족생활조건의 기초위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이의 개혁은 반드시 민족 경제의 기초위에 민족 본연의 발전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합부로 고쳐서는 안된다.”(周恩來, 1984:270-271)라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논설은 소수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하지 못한 풍속 및 관습은 개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그 개혁의 방법으로는 외부의 압력이나 행정명령식의 강제가 아닌 바로 각 소수민족의 경제 문화 발전의 필요성과 조건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소수민족 대중의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58년 12월 중국공산당 통전부(統戰部)가 중공 중앙에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은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정황을 구별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주의 생산건설에 도움되고, 민족의 발전에 유리한 풍속 및 습관은 마땅히 계속 유지되고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건설에 도움이 안되거나 민족의 발전에 불리한 풍속 및 습속은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어떤 풍속 및 관습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풍속 및 관습에 대하여는 좋은 일면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쁜 일면은 점진적으로 개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근 40년간 중국의 각 소수민족의 풍속 및 관습은 정치·경제적 변화와 사회생활 조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민족은 스스로 그 내용들을 개혁해 나갔다. 그리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많은 개혁이 뒤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민족의 전통적 명절(경축일)행사를 치루는 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매년 수많은 명절을 모두 지내왔던 풍습을 개선하여 이를 통합하여 매년 한 번 또는 몇 개의 행사로 집중하여 치루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활동내용에 있어서도 미신적인 요소들은 제거하고 많은 현대적 감각을 살린 전한 활동들이 채택되고 있다. 어느 명절은 점차 민족적 경축일로 승화되어 한 지역내의 각 민족이 공동으로 즐기고 우호를 돋독히하는 경축일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즉 바이족(白族)의 ‘三月街’, 몽고족의 ‘那達慕大會’(何潤, 1992:30)가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행사들은 모두 전통적인 구시대의 불건전한 내용들과 미신적 색채들을 제거하고, 문예·오락·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주위의 여러 민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축행사로 발전된 것이다. 한편 불건전하고, 비정상적인 풍속 및 관습은 심지어는 유해하기도 하여 각 소수민족의 대중들은 이미 배척하거나 폐지하였다. 예를 들면, 중남과 서남지구의 소수민족 중 유행되던 풍속관습 중 하나인 「표우(剽牛)³³」는 耕牛(논밭을 가는 소)의 대량 도살을 조장하여 농경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에 의해 이러한 풍습은 배척되었다. 또한 一夫多妻, 一妻多夫 제도, 전통적 이혼제도 등도 개혁되었고, 근친혼(近親婚), 전방혼(轉房婚)³⁴, 조혼(早婚) 등은 그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점이 소수민족들에게 공감대를 이루어 점진적으로 개혁이 되고 있다. 즉 소수민족들의 금기사항(Taboo)이나 미신적이고 불건전한 풍속 및 관습, 정상적인 생활에 저해가 되는 풍속 및 관습들은 계속적으로 개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예의법절과 공중도덕에 관련된 우량한 풍속 및 관습들은 그 내용을 계승하고 확대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이다.

33 소를 약탈하는 풍속.

34 전방혼(levirate)은 한 여인이 그 남편이 사망한 후 반드시 사망한 남편의 형제와 다시 결혼해야 되며, 그 형제는 그 미망인을 취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한 혼인을 말함.

IV. 결 론

중국은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차 3중전회 이후 적극적으로 민족정책을 전개하였다. 특별히 민족문제의 실질은 민족평등의 견지, 민족단결의 강화의 문제라고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후 중국은 효과적인 민족정책을 추진하여 민족관계와 민족차별 문제를 해결하여 평등·단결·호조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민족평등과 민족자결이라는 민족관을 계승하고 국가 전체와 소수민족의 특성을 모두 섭렵한다는 유물변증법의 철학사상(사물의 '共性'과 '個性'을 중시)이 체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및 문자의 표현과 풍속 및 관습의 보존에 대한 문제는 민족정책 중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소수민족 어문정책의 수립은 그 전제가 첫째, 민족언어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민족평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족간의 단결을 강화시킨다는 것과 둘째, 민족의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촉진시켜 민족지구의 발전과 현대화를 순조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전제를 바탕으로 중국이 계속 추진하여 온 민족어문정책은 첫째, 각 소수민족 언어문자의 사용과 개혁의 계속된 추진으로 민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게 되었고 둘째, 소수민족과 민족지구의 여러 사업발전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각 민족의 단결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작용도 하였다.셋째, 민족언어의 상호학습 권장으로 소수민족의 정치·경제·문화상의 낙후성을 해소할 수 있고, 소수민족지구의 四化(革命化, 年輕化, 知識化, 專門化)건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민족어문정책의 추진은 실체적으로 민족문제의 건전한 해결을 위한 선행 조건이 되고, 실질적인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선진 문화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정책은 국가가 절대로 등한히 할 수 없는 민족지구사회의 안정과 단결을 촉진하는 중요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정책도 언어 및 문자정책과 마찬가지로 그 기본 원칙은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에 두며, 정책의 대전제가 되는 것은 각 민족의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존중」이다.

특히 풍속 및 관습은 각개 민족의 역사전통, 경제생활, 문화예술, 심리와 감정 그리고 종교 등을 반영하는 것이고, 민족문제의 정확한 대처가 중요하게 요청되는 민족과 타민족을 구분하는 상징적 지표 중의 하나이다. 또한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정책내용은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존중에 관한 것과 아울러 풍속 및 관습의 유지와 개혁에 대한 기준 설정에 관한 것이다. 즉 우수한 전통을 갖고 있는 풍속 및 관습은 이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것과 낙후되고 민족단결과 생산의 발전, 민족번영과 심신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풍속 및 관습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개 민족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풍속 및 관습에 대한 지원정책은 민족적 자존심과 자부심을 제고시켜 민족단결을 강화하여 이른바 민족지구의 사회주의 문명건설을 촉진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귀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풍속 및 관습의 유지·개혁의 문제에 있어, 민족의 주체성을 나타내는 전통의 유지와 사회주의의 주체성을 나타내는 개혁과의 비교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민족문제의 실질에 있어 문화의 보존이냐 또는 변질이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江應梁

1993 『中國民族史(上,下)』. 北京:民族出版社.

唐蘭

1979 『中國文字學』. 上海:上海古籍出版社

『當代中國』叢書編輯委員會

1993 『當代中國的民族工作(上,下)』. 北京:當代中國出版社.

謝慶奎

1991 『當代中國政府』. 瀋陽:遼寧人民出版社.

潘重規

1983 『中國文字學』. 臺北:東大圖書公司

施正一

1992 『廣義民族學』. 北京:光明日報出版社.

梁釗韜, 陳啓新, 楊鶴書

1985 『中國民族學概論』. 昆明:雲南人民出版社.

王育民, 薛文華, 姜念東

1991 『中國國情概覽』. 長春:吉林人民出版社.

田요유

1991 『中華民族』. 北京:華夏出版社.

中國少數民族經濟研究會

1983 『民族經濟學研究』. 鈴夏: 人民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1983 『關於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註釋本』. 北京:人民出版社.

中共中央統戰部

1991 『民族問題文獻匯編』(1921.7.-1949.9.). 北京:中共中央黨校出版社.

國家統計局

1992 『中國統計年鑑』(1992). 北京:中國統計出版社.

中國大百科全書 出版社

1986 『中國大百科全書(民族)』. 北京·上海:中國大百科全書 出版社

中國地圖出版社 編

- 1988 『中國地圖冊』. 天津:中國地圖出版社.
- 民族知識手冊編寫組
- 1988 『民族知識手冊』. 北京:民族出版社.
- 何潤
- 1992 『當代中國民族問題的特点和發展規律』. 北京:民族出版社.
- 朝鮮族簡史編史組
- 1986 『朝鮮族簡史』. 延吉:延邊人民出版社.
- 蒙古族簡史編史組
- 1985 『蒙古族簡史』. 呼和浩特:內蒙古人民出版社.
- 赫哲族簡史編史組
- 1984 『赫哲族簡史』. 哈爾濱:黑龍江人民出版社.
- 滿族簡史編史組
- 1979 『滿族簡史』. 北京:中華書局.
- 鄂溫克族簡史編史組
- 1983 『鄂溫克族簡史』. 呼和浩特:內蒙古人民出版社.
- 鄂倫春族簡史編史組
- 1983 『鄂溫克族簡史』. 呼和浩特:內蒙古人民出版社.
- 金芳漢
- 1992 『언어학의 이해』. 서울:民音社
- 趙政男
- 1988 『중국민족학개론』. 서울: 교양사.
- Philip K. Bock 저, 趙炳魯 역
- 1993 『現代文化人類學 入門』 서울:경기대 학술진흥원
- 金炳鎬
- 1993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민족문제”『韓中蘇研究』. 대구: 효성여대 종소연구소, 창간호.
- 漢陽大學校 中蘇研究所
- 1993 『中蘇研究』 17권 1호(통권 57호).
- June Teufel Dreyer
- 1992 “Ethnic Minorities in Mainland China Under Teng Hsiao-ping”, Bih-jaw Lin and James T. Myers, eds., *Forces for Change in Contemporary China* (Taiw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Liu Hsien-chao
- 1985 “Some Questions Regarding Economic Development in Minority Nationality Areas”, *Hongqi* (Red Flag), (May 16): 23-25.
- Wei Xiang
- 1990 “Unity Among Nationalities Is an Important Factor for Stability in China”, *Zhongguo*

Xinwenshe (China News Service), (February 17):trans. in FBIS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hereafter, FBIS-CHI], 90-038 (February 26): 21.

毛澤東

1977 “不要四面出擊,” “論十大關係”『毛澤東選集』第 5卷. 北京: 人民出版社.

周恩來

1984 “關於我國民族政策的幾個問題”『周恩來選集』, 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羅常培·傅懋勸

1954 “中央少數民族語言文字概況”『中國語文』第21期

Analysis of China's Minorities Policies: With Emphasis on Ethnic Languages and Custom Policy

Chun In-you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China's minorities policy since she h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nation-building and state-building in 1949. Special focus will be put on China's ethnic languages and custom policies and their impact on national integration. Major concern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China has satisfie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mands of the ethnic minorities and to examine how China has supported the minorities.

The basic contents of China's minority policy generally can b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1) holding on to the equality among the nations and enforcement of national unity (2) accomplishment of national autonomous reign (3) recruitment and cultivation of ethnic cadres (4) support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e of ethnic regions (5) allowance and supprot of ethnic languages and letters (6) respect of ethnic custom of minorities. Amongst the above six categories, this paper will mainly deal with nature and object of China's policy of ethnic language and custom policies. By doing so, this paper can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s minority policy and social stability.

Essential parts in the minority policy are the maintenance of ethnic custom and languages even though they sometimes hinder the country's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Any country faces this policy dilemma and China is not an exception. Guaranteeing the rights and equality among all nations makes national integration through unity among different ethnic population difficult. On the other hand, supportive minority policy can enhanc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increase the inter-

natio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throughout the country. China, a multi-nation country, is composed of fifty-six ethnic minorities. Unlike the others such as East Europe and former Soviet Union, China's ethnic minority policies have been proved successful because of her generous and selective policy attitudes towards the minorities.

From 1949 to 1978, China's ethnic minority policies were characterized as the dualism: using violent means for repressive assimilation, and placating the inequality and dissatisfaction by allowing and respecting ethnic language and custom. Especially, China has implemented more relaxed policies in terms of language and custom of each ethnicity. In fact, the implementation of this generous policy was based on three policy objectives that China has accomplished. First, these policies abolished the inequality and possible political and social dissatisfaction of ethnic groups. Secondly, they played an affirmative role in uniting the different ethnic regions by central government's support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And finally, the encouragement of maintaining and using each ethnic minorities' language and custom not only have solved the relative regional backwardness but also served as a stepping stone for "Sihua" (Four Modernization: being revolutionary, young, intelligent, and special).

China's ethnic language and custom policies are essential for national integration and gradual assimilation to the Hans system. For this, China has changed since 1978 both in principle and practice and implemented an appeasement policy. China realize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keep the country united to accomplish the national integration and development by respecting the ethnic autonomy in language and custom than repressive assimilation.

전인영,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대교APT 5-413
Tel : 362-6064(O), 780-2302(H)